



John 3

요한복음 3
Tape #8071
By Chuck Smith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제3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1).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통치자였거나 영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공회회의 일원이었으며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유대인의 통치자였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께서 너는 선생이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제19장에 의하면 그는 매우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났었는데 100파운드나 되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건 굉장히 값이 비싼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부자였으며 또한 바리새인이었음이 틀림없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고 세 사람의 바리새인 앞에서 선약을 하곤 했다. 바리새파에 소한 사람들은 대략 6,000명이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전 생애를 투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3:2).

밤에 찾아온 걸 보면 그가 비겁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들이 있으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낮에는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분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이다. 몰려드는 군중이 없는 시간을 택했던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좀더 개별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3:2).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3:3).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만한 게 있다. 이 응답의 말씀은 한 줄기의 생각과 이해를 도출하기에는 너무도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았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3).

기본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최근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구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말라기 이후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계셨다. 하늘로부터 침묵만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에 그가 이제 다가온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성은 이와 같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진실된 의미에서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와 흡사한 얘기를 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라고 말했다(고전 2:14).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였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 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얘기는 신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제이다. 바울은 비유를 빌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다(롬 6:4).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차원에서 살게 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3중적 존재였다—영, 혼, 육.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우월한 삼위 일체인데 비하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된 열등한 삼위 일체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혼 육으로 된 인간을 살펴보면, 혼 즉 정신은 영에 의해 지배 받으며 영은 최고의 존재였다. 그러므로 영이 지배를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지성은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게 된다. 몸도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몸은 영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몸 즉 육과 영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는 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전투는 우리 생명을 지배하기 위함이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것인가? 육이나 영인가? 육체적 정욕인가 아니면 신령한 욕구인가? 여러분은 그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려 하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은 육체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든지 성령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어느 것이 최고 우위에 있게 되느냐에 달릴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우월한 삼위 일체인 하나님이 영 혼 육으로 된 열등한 삼위

일체인 사람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영이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 할 수가 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까지 이런 방식이 통했다. 그러나 아담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그것이 영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아담이 금단의 과실을 먹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다. 영이 죽고 나니 그는 건방진 사람이 되었다; 영은 죽고 이제는 육이 최고가 되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의식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교제하고자 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즉 자연인은 몸과 지성 뿐이다. 그렇게 되고 보니 지성이 육체적 탐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육신의 것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것들 즉 육신의 것들이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 그런 자연인 니고데모가 왔다.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왔다. 오랫동안 침묵해 오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육신에 의해 지배 받는 몸, 육신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얘기이므로, 니고데모는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질문 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3:4)?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3:5).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물 세례이다. 우리는 물 세례가 옛 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다”(롬 6:3).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옛 사람은 장사 되었다. 육신의 생명은 죽었으며 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물 세례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함께 살아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비유에서 물은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로 인해 육신의 옛 생명이 죽어 버리고 성령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나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해석은 물이 육신적 출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물 주머니에 싸여 보호를 받다가 그 주머니가 터지면 물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물로 아기도 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의 출생이 필요하다. 한번은 육신 즉 물로부터 출생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출생은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씩 출생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만 태어나면 당신은 두 번 죽게 될 것이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될 것이다. 두 번째의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3:6).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육신적 출생과 영적 출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듯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 누구도 여기서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은근히 두 번째의 개념으로 맘이 이끌리는데, 이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부터 출생하는 것과 성령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3:7).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오늘 밤 우리가 진지하게 상고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진정 거듭났는가? 하고 질문 해 보는 일이다. 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는가?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만일 네가 하나님에 들어가자 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네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단어는 또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히랍어로는 “프뉴마”가 “공기”나 “영”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루아흐”]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3:8).

여러분은 바람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바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다.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태도다. 여러분은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의 효과는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의 효력은 볼 수가 있다. 그것을 보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리 할 수 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3:9)?

이것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거듭 날 수 있느냐? 는 말이다. 거듭난다는 말의 개념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그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3:10)? [이것은 간접적인 어조로 약간 꾸짖는 듯한 표현이다.]

나는 너에게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기초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도 영적인 생활의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3:11).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보라.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증거하는 바이며 내가 본 것에 대해 네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의 삶에 대해 알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 알고 계셨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3:12)?

내가 좀더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2 + 2 = 4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삼각법(三角法)을 가르친들 알아듣겠느냐? 나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하려 하는데, 너는 하나도 못 알아

듣는구나. 내가 어찌 더 심원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3:13).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신적 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셨다. 그것은 앞서 니고데모가 인식했던 사실인데, 그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긍정하셨다.

우리는 지상 차원의 일들만을 취급한다. 우리는 사람과만 상대한다. 사람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사람은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도다”(사 59:1). 인간은 영을 죽인 죄 때문에, 즉 영적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내가 땅의 차원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니 만일 내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냐?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이므로 하늘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여행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을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 14년 전에 한 여행이었는데, 그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삼층천에 올라갔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그는 술회했다. 거기서 그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발설하려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예수님도 지금 그와 흡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로서 지금 지상적 수준에서 네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늘의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더라도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질문이 주어졌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만 질문자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 계시는 것 뿐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4,15).

예수님은 질문자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부터 꺼내셨다. 그는 이스라엘 중의 선생이었다. 그는 민수기 제21장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이 광야에는 떡도 없고 만나 먹는 일도 이제는 질렀다 하고 그들은 투덜거렸다. 그 불평 소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였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불뱀에 물려 수십 명씩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달려와 말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소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진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고 치료의 방책만 마련해주셨다. 그 치료의 방책을 따르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을 치료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흥미 있는 조건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뱀을 하나 만들라. 모세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었다. 그것을 진 가운데 있는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본다면 그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진 가운데 있는 장대에다 달아놓았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한 사람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본 즉 그는 살고 죽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상징성을 띄고 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중생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답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것이다. 구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구리 뱀은 죄의 상징이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하는 말이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 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너희는 불뱀에 물렸다.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죄에 물렸으며 죄는 너희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다면 너희는 이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리 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너희 죄는 이미 심판되었느니라. 물론, 이 그림을 예수님께 대입시켜 보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다음에 그분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므로 우리 죄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십자가를 쳐다보며 거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내려졌음을 깨닫게 된다. 내 죄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으신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 중앙에 미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고는 여러분의 치명적인 고질병 즉 죄로부터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당신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설명할 길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쳐다봄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길은 참으로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건 사실이다.

여기서 흥미 있는 사항을 잠깐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이 구리 뱀은 후에 우상으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들은 훗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히스기야 임금의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한 이 구리 뱀을 찍어다가 파괴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는데, 이는 구리로 만든 것이란 의미였다. 이것은 구리로 만든 물건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과거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 나도록 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유물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열심을 부추길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과거를 더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낡은 천막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는 옛날이 좋은 천막 안에서 살던 그 좋은 날을 기억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을 보면 그 옛날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을 세워 놓고 섬기는 것이다. 그 속에 사는 동안 낮 동안에는 얼마나 뜨거웠으며 밤에는 또한 얼마나 추웠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 나게 하는 과거의 유물을 과거로부터 제거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늘 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이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관계로 이전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오늘 밤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가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주간에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의 상념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시는지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바를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전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하여야 한다. 과거는 과거다. 가치가 있는 것은 현재이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이다. 미래는 우리 앞에 있다. 미래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 7,8,10,12-14).

그 과정은 이렇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것을 인식할 때 나는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내주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적인 생명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다. 한 번은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막 10:17)?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질적인 생명을 보았기에 그것을 찾아 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바로 그런 생명에게 이끌렸던 것이다.

삶의 질이 없는 삶의 양은 지옥이다. 혼수 상태에서 수 개월이나 수 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양 주사를 맞으며 버티는 것이 지옥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다. 삶의 질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향유하고 있는 삶은 질은 물론 양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삶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또한 영광스럽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목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긴다. 이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여 너댓 살 된 우리 손자도 이해할 만한 진리다. 그런 애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도 심오하여 나같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도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 나는 단지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뿐이다: 그것은 단순하고 동시에 매우 심오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3:17);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자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느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17).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이성을 잃은 듯이 예수님께 소리질렀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못들은 척하시며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재촉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분은 허리를 굽히고 다시 한 번 쓰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그분은 일어서셔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이 다 돌아간 듯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요 8:3-11).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됨은 웬일일까? 언제나,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를 믿는 자는(3:18)

물론 이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3:18).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인가.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하리라. 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중에 로마서 제8장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 개가 정죄하는 자이다 라는 식으로 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정죄하기는커녕 그분은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간구를 하고 계시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3: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지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느니라.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6:23).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아놓고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3:19,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오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늘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주제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도 큰 적개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에 대해 왜 그렇게 증오심과 적개심을 느끼게 되는지 그들조차도 설명하기 어렵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실을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펼치는 분이시다. 따라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3:20).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빛에 의해 드러나 꾸지람을 듣게 될까 봐, 그들이 그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은 악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예수님께 오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3:21).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듯 전체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사람이 거듭 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태어난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 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즉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 교통 하게 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는 막간 이야기가 나온다. 제22절이다.

이 일 후에(3:22).

우리는 지금까지 니고데모 방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3:22).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렸다고 한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랑 받는 자 요한이 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 한 것이라고 전해주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세례 요한과 유사한 사역을 행하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3:23).

거기에 물이 많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면, 그 당시의 세례는 분명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그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물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3:24).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였다. 여기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선지자 중에서 최종 주자였으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셨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히 1:1). 그러므로 여기서 구 시대의 마지막 인물과 신 시대의 처음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을 곳에서 두 사람이 모두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 한 사람 요한은 옛 시대의 끝이고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시작이셨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 유대 요단 강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요 3:25).

유대인들에게는 결례에 대한 율법이 아주 많았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며, 물을 얼마큼 사용해야 하며, 손을 쥐는 방법, 손을 비비는 방법 등이 규정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많은 규정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결례 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곤 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요 3:26).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전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신 자 즉 선생님이 증인을 서 주신 자가 지금 세례를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선한 일이 생겨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네가 어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마치 너는 특종인 것처럼 어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성령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행세를 할 수 없는 법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라는 말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요 3:28).

요한의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진짜 종이였다. 그는 참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요 3:29).

나는 신랑이 아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신부였다. 하나님은 남편에 해당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신부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말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는 즉 저 사람들은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 3:29).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올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신랑 친구의 몫이었다.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곤 했다. 신랑은 신부를 보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침묵을 지켰다. 신랑이 말을 떴었다 하면 그것은 그가 신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였다. 본문에 나오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인 후 “이로써 내 기쁨이 이뤄졌구나”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신랑 친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다.

내가 이제 내 임무를 완성하였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30).

얼마나 맞는 말인가.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몫을 구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말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리라.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래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큰 기쁨이 생겨난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애쓴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고자 애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할 증인 몇 사람을 선발한다. 세례 요한이 그 증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도 몇 가지 사건과 몇 가지 기적을 선발해 낸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들이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증인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애쓸 것이다. 지금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31절 이후의 기록이 누구의 얘기인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 받는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로 끝이 났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사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말치고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였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기쁨은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였으며, 이제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필자인 요한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3:31).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신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자”이시다. 여기서 현재 시제에 주의하라. 과거 시제가 아니다: ‘내려오신 자가’가 아니다. 예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시는 이이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3:31,32).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하신 얘기가: 너는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미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하였으나 너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3:33).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증거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3:34)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조금만 주신 게 아니었다.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생명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3:35).

시편 제2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 빌립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3:36).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올곧고 손쉬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3:36).

너희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3:36).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7).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아버지여,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좇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에 착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옵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나이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오며,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방도를 믿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의 삶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